

[북 스]

어린이 책꽂이

▲칸트처럼 생각하기=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생각들을 철학적 문제로 이어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철학책이다. '나는 어디 있을까' '크다는 것은 얼마큼 큰 것일까' 등을 주제로 한 가이이 아저씨와 토니의 대화는 청소년들을 철학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사계절·9천800원)

▲시금새금 마을의 로링아=마을에서 실존쟁이로 소문난 꼬마 로링아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상상 동화. 과정이 주는 기쁨과 성숙, 여유로움에 대한 가치를 일깨운다. (시공 주니어·7천원)

▲나 혼자 자라겠어요=강원도 사북 탄광 마을과 경남 거창의 산골마을에서 맑은 눈빛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임길택 시인의 동시집. 사물과 자연, 가족과 이웃사람들, 학교와 동네 아이들의 정겨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창비·8천 원)

▲놀-라지 우주=과학 분야 중 아이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골라 깊이 있게 다룬 학습만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삼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주에 관한 최신정보를 소개한다. (아이세움·8천500원)

▲선사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취학 전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 백과사전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2만5천 년 전 새끼전 얼골조각상이나 1만7천 년 전의 동굴벽화 등 각종 유물과 유적을 만날 수 있다. (큰북·작은북·8천원)

죽음 강요당한 카미카제 특공대의 고뇌

죽으라면 죽으리라 오오누키 에미코 지음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인들은 일본의 '카미카제(神風) 특공대'를 떠올리며 전을 울렸다. 서구인들에게 1941년 3월 비행기와 함께 산화하면서 진주만을 공격했던 '카미카제' 특공대는 광신적인 애국자, 심지어 무모한 인간들로 인식돼 온 게 사실. 그러나 비정한 자살테러의 전형으로 비추지는 그들의 '인식'은 '제국주의의 화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카미카제 특공대원이었던 하야시 이치조오는 진주만 공격을 앞두고 "천황 곁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솔직히 아직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나온 것이라 하기 힘들다. 하지만 천황 곁에서 죽는 것은 나에게 정해져 있다"는 내용의 일기를 남기도 했다.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이처럼 운명지위된 죽음을 자신에게 어떻게 이해시킬지 고뇌한 사람들이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 전임교수인 오오누키 에미코가 쓴 '죽으라면 죽으리라-카미카제 특공대의 사상과 행동'은 전선에서 죽음을 강요받았던 카미카제 특공대원과 학도병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조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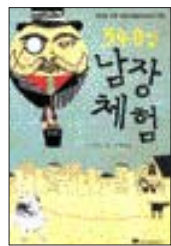


테러리스트의 원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카미카제' 특공대는 천황과 국가를 동일시한 맹목적인 애국자들은 아니었다. 1945년 4월 일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쿠라 꽃가지를 흔들며 출격하는 특공대원을 환송하고 있는 모습.

성 정체성의 비밀을 파헤치다

548일 남장 체험 노라 빈센트 지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잘 나가던 여성 저널리스트가 남자로 변신했다. 노라 빈센트의 '548일 남장 체험'은 이렇게 태어났다. 35세의 남장 네드 빈센트는 노라의 본신이다. 짧은 머리에 보디빌딩으로 벌어진 어깨, 수염 분장술, 남장용 남근, 발성 연습 등으로 변신 끝. 저자가 남장을 한 이유는 성 정체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충실한 취재로 담론에 그치지 않는 지적 경험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남자로 행세하면서 남자들의 행동 양식이나 습성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남에게서 남성으로 인식될 때의 감정, 생각, 행동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저자는 남자의 우정, 성욕, 사랑, 삶, 일, 자아찾기 등의 '체험담'을 통해 남성성의 실체가 "자신보다 열 사이즈는 큰 갑옷을 빌려 입은 왜소한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1만1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진화심리학으로 본 사랑·연애·섹스

욕망의 진화 데이비드 버스

미국 텍사스대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버스는 '욕망의 진화'에서 진화심리학으로 남녀의 사랑, 연애, 섹스, 결혼의 실체를 파헤친다. 1994년 미국에서 초판이 출간됐고, 2003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의 첫 한국어 완역본이다.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짝짓기 등 남녀 관계가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심리 기제가 바람직한 배우자를 두고 밟는 짝짓기 전략에서 경쟁자를 제치는데 따르는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성의 경우 아이를 잘 낳는 여성을 선택하기 위해 S라인이라 불리는 허리 대 엉덩이 비율에 민감한 선호도를 진화시켰다. 여성은 임신 기간 동안 심리·육체적 자원 소모를 감싸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저자는 정확한 이해로 강간 등 남녀의 욕망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사이언스북스·2만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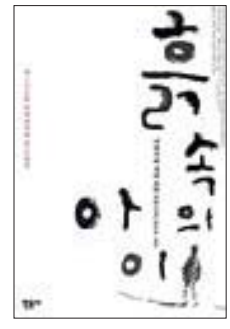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나카무라 후미노리 '흙 속의 아이'

"참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자신을 망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뭐가 그리 만족스러워지던 멍청이처럼 웃더라. 그 사람 인생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였을까, 환경 탓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을까." 임신한 상태에서 남자에게 버림받은 후 사산을 한 여자가 어린 시절 엄청난 폭력에 시달려 그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 남자에게 하는 말이다. 물론, 이 여자는 자신 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 남자라면, 그러면? 나 역시 일부러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까? 일본 작가, 나카무라 후미노리의 장편소설 '흙 속의 아이'(민음사)의 첫 장을 읽었을 때는 나 역시도 이 소설이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사람의 이야기라 아닐까, 의심했지만 점차 이 소설은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 세계, 그러나 이 세계가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도 절대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낸 남자의 이야기였다. 이 남자, 영입 택시를 몰고 같이 되면 결말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불쌍해달라 시비를 걸어 두들겨 맞고, 오래 전부터 높은 곳에서 도마뱀이나 개구리를 떨어뜨리며 즐기는 이 남자, 이 남자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폭력에 맞서는 인간 의지



어린 시절 이 남자는 아이였고, 그 아이는 자신을 때릴 때 어른들이 때리면서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기가 울고 있으니, 맞는 건 당연하지, 안 그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려다 결국엔 "이것이 세계라고, 세계는 그런 것이다"라며, 자신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믿게 된다.

나중에 이 아이는 흙 속에 묻힌다. 어른들은 이 아이를 산 채로 흙 속에 묻어버린다. 눈으로 밟고 모래가 들어올 때, 이 아이는 폭력에 대항할 그 어떤 희망도 힘도 없던 이 아이는 구멍이에 누워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아이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이대로 좋은 말인가. 두 팔을 위로 향하고 땅을 파듯 마구 긁어내고, 새로운 흙이 흘러내리면 입으로 들어오는 흙을 뱉어내며 이 아이는 지상으로 올라온다. 올라와, 목소리마저 잃어버렸던 이 아이는 몸의 저 바닥에서 솟구치는 비명을 질러댄다. 흙 속에서 살아남자마자 자신을 물어뜯어 죽어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그 산 속의 들개들 향해, 아니 들개의 저편에 있는 것, 이 아이를 상처 입히려는 그들의 저편에 있는 것, 이 세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깊은 곳에 얽여진 존재하며 폭력적으로 인간과 생물을 지배하려는 운명과 같은 것을 향해, 그리고 모든 힘없는 생명체를 짜부러뜨리려 하는 거대한 힘들을 향해 외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너희들 생각대로는 절대로 안 돼. 시키는 말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장애를, 자유로운 내 손으로 부수고 말테다! 그렇게 흙 속에서 살아남은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다. 아직은 폭력에 시달렸던 기억에 괴로워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삶을, 스스로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이 남자에게 나는 힘찬 응원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명량 <소설가>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과 정: 주반(10:00~13:50) / 이반(19:00~22:30)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내 용: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교수진: 한용호·박한수 교수(저자직강)
 ●기 타: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책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입)모집중
 (개강 9월 2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과 정: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기 타: 훈련수료 후 개인별 합금(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철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합격:세무공무원 1800원을 하반기, 내년 상반기 2회 추가 모집예정!! =
7·9 급 공무원
7·9 급 공무원
 =전직중 완전대비=
 전·일반행정·교육행정(합격대비) 개강 9월1주야반모집 (예약수중)
 =無等은 옛부터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철서점 (동명초교 후문앞)
 www.mdgoal.co.kr ☎ 222-4560

9월대개강 (1차개강 9월 1일 / 2차개강 9월 3일)
 전문대졸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립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DEET 전문과정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경철서점) ☎ 227-8088

Gallery RODEM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17동백면
 -백운동- 남동주-
 상당지음, 보리지, 신대동지, 미애이동명, RODEM

특별기획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